

공중에 떠있는 느낌의 아파트 싱가포르 ‘스캇타워’



▲ 싱가포르에 건설예정인 스캇타워 조감도

‘공중 부양(?)’을 통해 주거민에게 쾌적한 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‘공중 부양 아파트’가 싱가포르에 건설될 전망이다.

싱가포르 최대의 번화가인 오차드 로드 인근에 세워질 스캇타워(36층)는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.

36층 건물 4개동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 최고층 입주자는 36층이 아닌 68층 높이의 전망을 누릴 수 있다. 중심축에 붙어 있는 각 아파트 건물이 30층 정도 높이까지 솟아 있어 1층이 보통 건물 30층보다 높은 것이다.

이 건물은 싱가포르 당국의 엄격한 고층건물 건설 규제 때문에 이 같은 모습으로 설계됐으며 스캇타워의 최고 높이는 153m이다.🌀



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-나비 효과

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. 이것이 바로 「나비 효과(butterfly effect)」이론이다. 이 이론은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(E. Lorenz)가 기상 관측 중 생각해 낸 것인데, 그 후 이것은 물리학의 카오스 이론 등 학문 분야의 연구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.

나비 효과 이론은 한마디로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, 날씨와 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 과

학 이론은 적용된다. 예를 들어 나비의 날갯짓 정도에 불과한 태국의 통화 정책 변화라도, 예전에는 기껏해야 남아시아 지역 에나 영향을 주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. 요즘은 「세계화 시대」이기 때문에 「나비 효과」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.

북경의 나비 한 마리가 미국에 허리케인을 가져올 수 있고,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릴 수도 있는,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.